KMI CHINA Research Center

KMI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國 上海市 長寧區 遵義路 100號 虹橋上海城 A-1803
Tel.+86-21-6090-0395~6, Fax.+86-21-6090-0397

제16-7호
2016년 4월 15일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물류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201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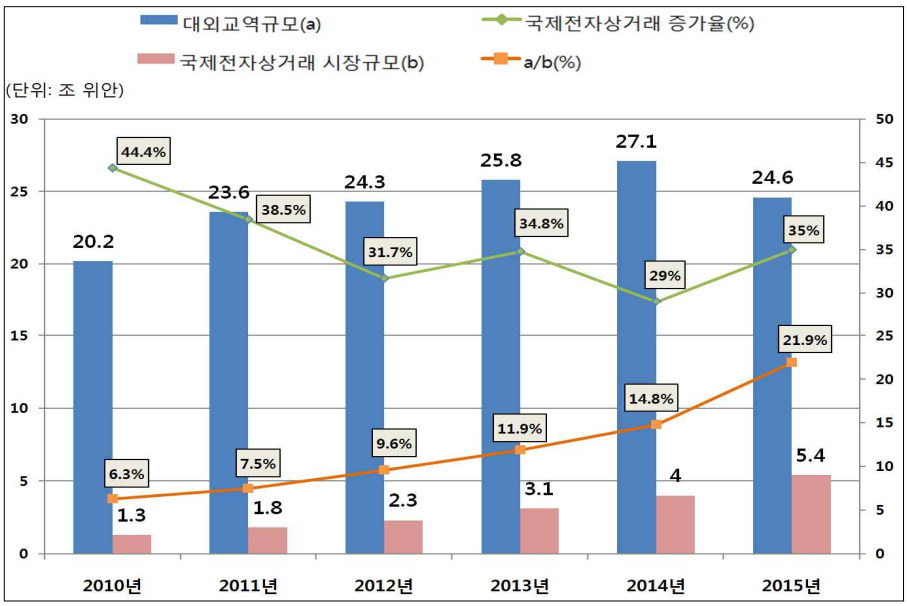
▸ 이슈 포커스
: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과 시사점

▸ 동향 & 뉴스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물류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2010~2015년)



자료: 중국상무부; KMI재정리.

2015년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시장규모 5조4천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5% 증가

2010년 이후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연평균 30% 이상 증가했다. 2015년 시장규모는 5조 4천억 위안(한화 약 1,020조 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중국의 대외교역 중 국제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6.3%에서 2015년 21.9%로 대폭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를 이끄는 신 성장 동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공표된 '13.5(2016~2020)계획' 에는 전자상거래 국제대통로 구축 계획이 공식 포함되었다. 2020년까지 100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글로벌 및 일대일로 연선국가 시장을 겨냥한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 빅데이터 분석기관인 Tentinet는 2017년 국제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8조 위안을 넘어서고 대외교역 중 비중도 2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범화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상무부는 지난 3월말 '국제전자상거래서비스규범(跨境电子商务服务规范)' 초안을 공개하고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다.

Contents

통계로 보는 중국물류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2010-2015년)
▸ 이슈 포커스
: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과 시사점
▸ 동향 & 뉴스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01-08	04-15
종합지수	734.95	636.14
일본 항로	619.87	621.16
구주 항로	855.19	647.39
미서부 항로	761.60	644.88
미동부 항로	846.92	820.02
한국 항로	584.19	526.02

주 : '01-08' 2016년 1월 8일 지수.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01-08	04-15
종합지수	856.91	785.81
석탄	844.95	781.38
곡물	606.92	594.16
금속광석	833.43	663.69
정유	1,246.17	1,246.17
원유	1,541.72	1,541.72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이슈 포커스: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과 시사점

지난 3월 국무원은 상무부와 교통운송부, 세관총서, 발전개혁위원회, 국가표준화위원회 등 6개 부처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무원의 '물류산업발전 중장기 계획(2014~2016)'과 '전자상거래 발전을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육성에 관한 지침' 및 '인터넷 플러스 액션플랜 추진 지도 의견'을 근거로 수립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이 계획의 수립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현황과 과제

1. 현황

1) 전자상거래 교역규모 급증

2015년 전자상거래 교역규모는 20조 8천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같은 해 온라인 소매총액은 3조 8,8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3.3% 증가했다. 2015년 택배건수는 206억 7천만 건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했으며, 그중 70% 이상은 전자상거래 배송이었다.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에 따라 물류창고 및 배송수요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 사업 주체의 다원화

기존의 택배, 우편, 운송, 창고 등 기업들이 생산과 유통 분야로 확장하고 전자상거래기업과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대형 전자상거래 물류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3) 서비스능력의 향상

제3자 물류, 공급사슬형, 플랫폼형, 기업연맹 등 다양한 모델방식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범위도 동일 도시, 타 지역, 전국, 국제 등 다양화되고 있다. 배송기간도 시간 배송, 당일 배송, 다음날 오전, 다음날 배송으로 세분화되었다. 그 외에 예약배송, 방문교환서비스, 대금수취대행 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4) 정보기술의 광범한 활용

기업의 정보화, 집성화, 지능화 발전이 가속되면서 바코드, RFID, 자동분리기술, 가시화 및 화물추적시스템, GPS, 지리정보시스템, 전자데이터교환, 이동지불기술 등이 광범하게 응용되면서 서비스효율과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다.

Contents

통계로 보는 중국물류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2010-2015년)
▸ 이슈 포커스
: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과 시사점
▸ 동향 & 뉴스

2. 과제

중국 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인터넷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 인프라시설의 개선, 전자상거래 물류수요의 급증 등으로 사회생산과 주민생활을 위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1) 전자상거래 물류수요의 급증

신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 주민소비 수준 향상 등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경제·사회 및 주민생활 등 분야에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물류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교역 주체와 제품이 풍부해지고 이동구매, 사회네트워크 등이 새로운 성장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2) 전자상거래 물류 서비스품질과 혁신능력의 향상

제품구조와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쇼핑과 이동전자상거래 등의 보급으로 전자상거래 물류는 서비스혁신, 능동성 확대, 규범화, 공급사슬 자원의 통합능력 등으로 세분화된 시장수요의 충족이 불가피해졌다.

3) 전자상거래 물류의 내륙화 추세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보급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류수요가 내륙화, 중소도시와 농촌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새로운 성장 공간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물류가 지역 간 상품유통과 통일된 시장 형성에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4)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 빠른 성장 예상

새로운 대외개방과 일대일로전략의 추진은 국제전자상거래 발전을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국제물류와 해외자원 및 시장통합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2 계획의 주요 내용

1. 기본방향과 원칙

시장원리 존중,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의 발전 이념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류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O2O(Online to Offline)의 융합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와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 물류원가 절감과 물류효율 향상, 국내외 자원과 시장을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전자상거래 물류발전을 위한 법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Contents

통계로 보는 중국물류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2010-2015년)

▸ 이슈 포커스
: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과 시사점

▸ 동향 & 뉴스

[표1]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의 기본원칙

기본원칙	주요 내용
시장주도 및 정부추진	○시장원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활성화 유도 ○법률과 규범, 계획, 정책 등 분야에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체제, 발전 환경 등의 문제점 해소
계획의 통일화, 집중화 추진	○부처간, 산업간, 지역간 협력체제 개선 ○전국 및 지역, 도시와 농촌, 국내외 전자상거래 물류체계 구축 ○전자상거래 물류의 정보화, 표준화, 집약화 등 집중 개선
조화발전 및 혁신 강화	○전자상거래와 실물 경제, 무역과 물류 등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배송, 정보서비스 등의 연결 강화 ○전자상거래 물류모델 혁신, 관리혁신 등 강화
개방과 공유 및 녹색 성장	○기업의 글로벌경영 장려, 국내외시장이 통합된 전자상거래 물류네트워크 구축, 전자상거래 물류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물류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공유 수준의 향상 ○물류배송의 에너지 소모와 오염배출 감소, 포장의 표준화, 감량화 및 순환 활용 촉진

자료: 상무부,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

2. 목표와 주요 임무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분포 개선, 구조의 합리화, 완벽한 기능, 고효율 운영, 우수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 표준화, 집약화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을 달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자상거래 물류혁신 능력의 향상, 선진 물류장비와 기술의 광범한 이용을 촉진, 둘째, 통합 운영, 네트워크화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운송, 보관, 배송 등 단계의 조화로운 발전과 긴밀한 연계 강화, 셋째, 대외개방 수준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글로벌 교역과 마케팅 서비스를 위한 전자상거래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 추진, 넷째, 녹색성장 발전을 촉진하고 포장의 순환 이용 수준을 향상, 다섯째, 전자상거래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과 국내외 서비스네트워크를 확보한 기업 육성, 여섯째, 전자상거래 물류의 원가 절감과 효율 향상 및 공급사슬 서비스능력의 대폭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요 임무로는 물류네트워크 구축과 표준화, 정보화 수준의 향상, 녹색성장 추진 등 7대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표2]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의 주요 임무

주요 임무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발전을 지원하는 물류네트워크 구축	○전자상거래 수요에 따라 도시와 농촌 및 전국을 서비스하고 세계를 연결하는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구축 ○물류거점도시, 유통거점도시, 국가 전자상거래 시범도시 등을 기반으로 전국 및 지역 전자상거래 물류네트워크 분포 개선 ○도시계획에 따라 분리배송센터, 배송센터, 지역영업망 개발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융합 발전 신모델 모색, 도시간 운송과 도시배송의 연계, 창고일체화를 통한 공동배송, 복합운송, 트레일러 운송, 표준파렛트 순환공용 등 고효율 배송시스템 구축

Contents

통계로 보는 중국물류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2010-2015년)
▸ 이슈 포커스
: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과 시사점
▸ 동향 & 뉴스

전자상거래 물류표준화 수준 향상	○소비재, 농산품, 약품유통 등 분야를 중심으로 파렛트, 상품포장 및 서비스 교역프로세스 등에 관한 표준화 제·개정과 보급 촉진 ○파렛트 표준화를 바탕으로 진열대, 회전용 박스 등 창고배송시설 개선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운송 수단의 표준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물류 표준화 추진
전자상거래 물류정보화 수준 향상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바코드 RFID, 스마트분리시스템 등 정보기술과 장비의 활용 보급화 ○물류시설장비의 지능화, 물류작업 효율화, 물류 프로세스 표준화, 물류 교역서비스 데이터화, 물류과정에서의 가시화수준 향상 ○지능형 물류단지, 효율적인 창고관리시스템, 물류분리배송시스템, 물류정보 서비스플랫폼 구축 ○전자상거래 물류기업의 정보화, 지능화 기술 활용과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장려하고 전자상거래와 물류의 융합 발전 추진
전자상거래 물류기업의 녹색성장 추진	○전통 물류기업의 기존 물류시설 개조를 통한 3PL기업 전환 장려 ○전자상거래기업과 생산기업의 물류사업 외주를 장려하고 3PL서비스 발전 ○자원통합능력을 갖춘 4PL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의 분산된 운송, 보관, 배송 물류자원을 통합 이용하며 중소기업의 발전 견인 ○전자상거래 물류기업의 신에너지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오염배출과 자원소모 감축, 배송루트를 통한 포장물 회수 등 역물류체계 육성
중소 도시와 농촌지역 전자상거래 물류발전 가속화	○전자상거래 물류기업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서비스 확대 지원 ○농촌산업 특징을 고려, 물류기업과 각종 농업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신형 농촌 전자상거래 물류주체 육성 ○동 사무소와 우정 등 기존 물류자원을 활용하고 전자상거래의 농촌시장 진입, 정보의 마을농가 진입, 택배의 내륙화 촉진 ○합리적인 분포, 양방향 고효율, 풍부한 물품과 편리한 서비스 기반의 농촌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체계 구축
민생분야의 전자상거래물류 발전 가속화	○전자상거래 물류기업과 체인점, 요식업, 지역서비스기관 등 간 상품 체험, 원스톱 쇼핑, 배송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 강화 ○신선 농산품, 식품위주의 콜드체인 물류발전을 촉진하고 선진 장비와 정보화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콜드체인 물류체계 구축 ○의약품 생산과 유통기업의 온라인 입찰과 통일 구매를 지원하고 GSP 약품 경영 품질관리규범에 따라 의약품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위한 규범, 표준, 네트워크화된 콜드체인과 추적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약품의 안전성 확보
개방·공유의 국제전자상거래 물류체계 구축	○국제 및 보세물류 발전을 가속화하고 일대일로와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국제전자상거래 물류체계 구축 ○경쟁력을 갖춘 전자상거래 물류기업의 글로벌 발전전략을 장려하고 협력, 인수합병 등을 통해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점차적으로 주요 발전도상국과의 택배노선 연결 강화 ○물류기업간 연합을 통해 여건을 갖춘 국가 및 지역에 해외물류단지와 창고배송센터 개설 ○국내외 기업간 전략·기술·제품·데이터·서비스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전자상거래 물류시장을 공동 개척

자료: 상무부,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

3. 주요 추진 과제

주요 추진과제로 전자상거래 물류표준화, 공공정보플랫폼, 농촌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콜드체인물류, 녹색순환 등 8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표3]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의 주요 추진 과제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물류표준화사업	○전자상거래 물류기술, 장비, 작업프로세서, 정보교환, 서비스규범 등 분야의 표준을 제·개정하고 포장, 파렛트, 회전용 박스,물품코드 표준을 개선하며 택배서비스와 온라인 소매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 표

	준 제정 ○파렛트 표준화와 순환 공용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물류기업, 대형 무역체인기업, 소비재 생산기업, 3PL, 파렛트 임대기업 등을 주체로 전자상거래물류 표준화 추진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규범, 도시물류배송 자동차선정 기술지침, 도로차량규정 등의 이행 강화와 배송차량 통일 표식 및 관리 가속화
전자상거래 물류 공공정보플랫폼 사업	○기존 물류정보서비스 플랫폼의 교역,융자,보험,지불,모니터링,기술지원 등 서비스기능 확대를 장려하고 서비스품질 향상, 서비스범위 확대 등을 통해 3~5개 국내외 물류자원 능력을 통합한 대형 전자상거래 물류플랫폼을 육성 ○정부의 물류정보 공개를 통해 기업과 사회, 최종 사용자의 수요 충족 ○물류정보서비스 플랫폼간 연계와 자원 공유를 장려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바탕으로 국제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위한 원스톱 물류서비스 플랫폼 구축 모색
전자상거래 물류 농촌서비스사업	○신형 도시화 개발과 전자상거래의 농촌진입 사업을 바탕으로 현, 향진[1] 기존 유통네트워크 자원을 통합하고 농촌전자상거래 물류 배송체계 구축 ○전자상거래기업, 대형 체인기업과 물류기업의 농촌서비스거점분포 개선과 공산품의 농촌시장 진출, 농산물의 도시시장 진입 적극 지원 ○운영서비스센터와 창고배송센터 기능을 갖춘 현 단위 농촌전자상거래 서비스센터를 설립하고 전자교역, 온라인쇼핑, 온라인지불 등 농촌물류배송 서비스를 발전시킴
전자상거래 물류 지역서비스사업	○전자상거래 지역사회진출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전자상거래물류 편의시설를 개선하고 방문 수령망 확대와 지능자동수령정비 보급 ○소매체인기업, 택배, 배송기업, 생활서비스기업 등의 주민지역사회 전자상거래 물류 서비스체계 공동 구축 장려 ○마지막 1km, 100m 배송문제 해결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물류사업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물류기업의 현대기술 활용 장려. 특히 전자송장, 습온도 기록시스템,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보급을 통해 가공, 저장, 운송, 배송, 판매 등 각 단계의 안정성, 투명성, 가시성, 검색 편리성, 에너지 소모 절감 등 구현 ○배송센터와 배송망 개발을 장려하고 신선 농산물,식품,의약품을 경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의 경영 및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추진하고 O2O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콜드체인 원가를 절감
전자상거래 물류 녹색순환사업	○전자상거래 물류기업의 배송경로를 통한 폐기 포장물 회수이용 장려 ○포장표준화와 분류회수이용을 통해 이용효율 향상 ○신형 포장기술과 자재 활용을 통해 포장 감량화 및 순환 활용을 촉진하고 포장재의 분해와 무해화 달성 ○온라인, tv, 일간지 등을 통해 환경보호 공익광고홍보를 강화하고 녹색포장이념 수립
전자상거래 국제사업	○국제전자상거래 물류편리화 추진 ○전자상거래 물류기업의 글로벌화 및 인수합병을 위한 법무,상무,세무 분야의 정보를 지원하고 해외인수합병 심사허가, 외환편리화 등 추진 ○국제전자상거래의 주문,지불,품질보장 등 정보의 종합통관 데이터로 활용하여 통관편리화 추진 ○통관과 검역, 우정관리 등의 협력 체제를 개선하고 국가간, 지역간 검역기준 상호 인정 추진 ○국내 우정시설, 우정국제통로, 항공운송자원과 철도운송자원 등 자원의 전자물류기업에 개방 및 공유 장려
전자상거래 물류혁신사업	○연구소와 대학에 전자상거래 물류혁신 플랫폼 및 연구소 설립을 장려하고 핵심기술 병목문제 해결 ○산·학·연 혁신연맹 구축, 체제와 모델 혁신, 집중적으로 로봇, 클라우드 컴퓨팅, 북두항법시스템, 모듈집성, 정보수집과 관리시스템, 데이터 교환 등 기초기술 개발 강화 ○전자계약서와 전자결재, 물류추적, 정보안전, 고객행위분석 등 기술의 응용을 통해 전자상거래 물류기업의 관리혁신, 서비스혁신, 비즈니스 모델 추진

Contents

통계로 보는 중국물류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2010-2015년)

▸ 이슈 포커스
: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과 시사점

▸ 동향 & 뉴스

4. 주요 지원책

주요 지원책으로는 계획 이행 강화, 유리한 발전환경 조성, 정책 개선을 통한 지원, 신용 및 감독관리 체계 개선, 전자상거래 물류통계 모니터링제도의 개선 등이다.

[표4]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의 정책 지원 조치

주요 임무	주요 내용
계획의 이행 강화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교통운송부, 세관, 우정국, 표준화위원회 등 주관 부처간 협력체제 강화 ○지방 관련부처의 경우 계획의 목표와 임무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류특징과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지역 전자상거래물류 발전을 지도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며, 관련정책조치를 구체화 ○관련협회와 상회, 연맹 등 사회단체도 산업자율, 산업연구, 표준의 홍보, 통계 모니터링, 인원 훈련, 홍보확대 등 분야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 추진
유리한 발전환경 조성	○연관분야 개혁 확대, 지방폐쇄와 산업독점을 타파, 행정권력의 남용과 시장지배지위 금지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정부기능 전환과 행정효율 향상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물류기업의 행정심사허가 및 영업망개설 심사허가(등록)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물류기업의 네트워크 분포 및 일체화 경영에 부응하는 기업공상 등기제도 구축 ○전자영수증제도 도입과 보급을 확대하고 세무관리와의 연계 강화 ○관련 법률법규를 개선하고 시장주체 행위를 규범화하며 공정경쟁, 통일개방, 경쟁질서 있는 시장환경 조성
정책 개선을 통한 지원	○서비스발전 전용자금과 기존 정책을 활용하여 주요 임무와 추진과제에 대한 지원 확대 ○다양한 융자루트와 방식을 통해 전자상거래 물류의 자금난 해소 ○전자상거래 물류의 보관, 분리배송, 배송 등 계획 용지를 보장하고 기존 장려 정책의 충실한 이행 보장 ○도시교통 및 배송관리 정책을 개선하고 도시배송 및 택배차량의 통행문제 해소 ○신에너지 자동차, 기준에 부합되는 전동삼륜차 사용 장려
신용 및 감독관리 체계 개선	○전자상거래 물류기업의 등급선정 및 신용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평가를 기반으로 제3자 평가를 주체로 하는 시장메카니즘 전자상거래 물류신용평가체제 구축 ○전자상거래 물류산업정보 공개체제를 개선하고 레드 및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시장신용환경 조성 ○국제전자상거래 물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고효율, 편리, 통일적인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추적 및 비교 가능한 데이터시슬 구축 ○전자포트를 바탕으로 단일창구, 원스톱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며, 국제물류택배의 통관, 출입국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구현
전자상거래 물류통계 모니터링제도 개선	○통계지표체계 개선, 조사방법 혁신, 과학적인 통계샘플 선정 및 산업통계의 적시성,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물류산업 발전현황을 파악 ○전자상거래 물류통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분야와 단계, 시간대에 대한 데이터 관리 강화 ○통계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산업발전 동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리스크분석을 수행하여 관련부처와 기업의 정책결정을 위한 자문 및 경보서비스 제공

1) 시·현·향진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인 시·군·구에 해당함.

Contents

통계로 보는 중국물류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2010-2015년)
▸ 이슈 포커스
: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과 시사점
▸ 동향 & 뉴스

4 시사점

이 계획은 향후 5년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산업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향후 중국이 추진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핵심 추진과제 및 정책 조치를 공표함으로써 정부와 업계 및 사회 각층이 이에 따른 정책 추진에 매진하고 전자상거래 강국비전을 실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주로 전자상거래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3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상거래 물류네트워크 분포의 개선이다. 현재 물류네트워크분포는 신속·고효율· 완벽한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1km 배송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배송 네크워크분포 개선과 농촌물류인프라시설 개발 및 기간망과 사회지역서비스망의 연계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둘째, 자원의 공유와 물류서비스모델의 혁신이다. 도시물류 창고부지 확보 비용의 상승, 택배차량의 도시도로 통행문제, 기업별 네트워크 구축과 인원확보 등으로 물류자원의 이용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물류서비스의 다양화 추진, 공생공유의 이념 수립, 물류서비스모델 혁신 예컨대 공동배송, 보관배송 일체화, 순환활용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물류서비스의 규범화와 품질향상이다. 물류서비스규범의 마련과 표준화를 통해 서비스품질을 향상하고 종국적으로 효율적인 배송, 합리적인 배송가격, 친환경적인 포장, 정보안전과 제품품질 보장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상무부에서 제정한 최초의 전자상거래 물류표준인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규범(电子商务物流服务规范)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계획은 한국 물류기업의 새로운 진출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8대 추진 과제 중 물류 표준화사업, 콜드체인 물류사업, 국제전자상거래사업, 전자상거래 물류혁신사업 등은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파렛트 표준화는 오래전부터 한중일 간 협력이 지속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트, 사물인터넷 등 사업은 ICT강국인 우리나라가 기술제휴나 시범사업 참여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전자상거래사업은 국가간 통관 및 검역기준 상호 인정을 기반으로 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콜드체인 물류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풍부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페리 등을 활용한 콜드체인 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 규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문진 전문연구원
kmishanghai@naver.com

Contents

통계로 보는 중국물류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2010-2015년)
▸ 이슈 포커스
: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과 시사점
▸ 동향 & 뉴스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

동향 & 뉴스

경제 · 정책

- 푸저우항, "13.5"기간 180억 위안 투자하여 핵심항만 구축
- 푸젠성 '13·5'계획, 해상실크로드 핵심구 건설 박차
- <중국(푸젠)자유무역시험구조례> 2016년 4월부터 실행
- 톈진항 "인터넷+"플랫폼 구축, 병행수입 자동차 기업에 공급사슬 종합서비스 제공
- "쓰촨성 이빈(宜宾)-장쑤성 난진(南京)" 컨테이너선 직항 개통

해운 · 항만 · 물류

- 충칭(重庆), 장강 상류 항운중심 건설 추진
- 우한(武汉)개발구, 항만물류 발전계획 수립, 2020년까지 천억 위안 경제체 형성 예상
- 톈진항 신부두 건설
- 항만건설 강화로 "일대일로"를 지지한다
- 푸젠(福建)성, 최초 7만 톤급 크루즈 샤먼에서 건조 예정
- 광시 북부만 항만 행정관리자원 통합 완성
- 초대형 부두 탄생 임박! 닝보항 촨산항 일체화 운영 실시 예정

해양 · 수산

- '13·5'계획 중 해양이슈 — 해양경제 심화 발전, 해상 집법기구의 능력제고, 해양생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관리 추진
- 5가지 측면에서 중국 수산 식품 가공 개발
- 中외교부: 필리핀의 중예다오(中业岛) 공항 보수 행위는 언행 불일치의 허위성 폭로
- 첫 번째 전국해양경제조사 장쑤성 진강시(镇江市) 시험지의 조사작업 시작
- 산동성 르자오시 해천 피셔맨스워프(海天渔人码头) 건설 계획, 2018년 말에 운영 시작



Contents

통계로 보는 중국물류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2010-2015년)
▸ 이슈 포커스
: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과 시사점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1 푸저우항, "13.5" 기간 180억 위안 투자하여 핵심항만 구축

최근 소식에 따르면, 푸저우항은 13.5 기간 동안 항만 건설에 180억 위안을 투자해 장인(江阴) 항만구역과 뤄웬(罗源)만 항만 등 2대 성급 핵심항만구역과 연이어 산두아오(三都澳) 항만구역, 송샤(松下)항 등 주요 항만구역 건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시장+정부주도"의 형식을 통해 종합서비스 능력을 제고시키고 핵심항만구역의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장인 항만구역은 국제컨테이너 해운허브항으로서의 위치와 FTL(Full Truck Loaded) 수입의 중요 위치를 확립한다. 뤄웬만 항만구역은 전국 연해항만 주요 벌크화물의 환적항으로서의 위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말까지 푸저우항은 전체 항만 선석 200개 이상(만 톤급 이상 선석이 80개 이상), 연간 물동량 처리량은 2.2억 톤, 컨테이너는 260만 TEU 가량 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항만 물동량은 2억 톤 돌파, 컨테이너 300만 TEU 돌파, 그 중 장인 항만구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만 TEU를 달성, 뤄웬만 항만물동량은 1억 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년 푸저우항은 "인접개발, 공용위주, 규모경영"의 이념을 바탕으로 핵심항만의 지속추진과 중점항만 구역 건설을 위해 37억 8,000만 위안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항만운송생산 방면으로는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체계를 갖춰 푸저우, 타이완 두 지역의 대형 해운항만기업이 서로 투자를 해서 항만과 물류원구를 건설하도록 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고효율의 물류체계를 갖춰 해운과 핵심항만구역이 함께 성장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 자료 : 福建省交通运输厅, 2016. 03. 24. >

2 푸젠성 '13·5'계획, 해상실크로드 핵심구 건설 박차

최근 <푸젠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5'계획 요강>이 발표되었다. <요강>에서 향후 5년 동안 푸젠성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해양경제 강성(强城)으로 거듭날 것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해양생산총액 1조 위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강>에 의하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 건설에 있어, 푸젠성은 해상통로 건설을 강화할 것이며, 해상실크로드 국가와 지역 간 항만해운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육해복합운송을 보완하고 정보화회랑 건설을 추진함으로서 아세안 국가들과 상호 연통한 정보회랑(信息走廊)를 구축할 것이다.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로 향하는 해상실크로드 핵심구 전략통로와 종합중추를 적극적으로 구축한다.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연선 국가·지역과 함께 해상실크로드 관광경제회랑 및 환남중국해 관광경제권을 건설한다. 인문교류에 있어 중요한 유대를 형성하여 해상실크로드 도시연맹 설립을 추진한다. 개방협력 기제를 혁신하고 '일대일로' 건설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광동성, 저장성 등 지역들과 협력해서 중국 내 해상실크로드 건설 협력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한다. 대만과도 대외협력을 추진한다. 해양협력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Contents

통계로 보는 중국물류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2010-2015년)
▸ 이슈 포커스
: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과 시사점
▸ 동향 & 뉴스

<요강>에 따르면 '13·5' 시기에 푸젠성은 현대 해양산업의 발전, 과학기술을 통한 해양 부흥, 해양 종합관리체제 혁신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 현대해양산업 발전 추진에 있어, 해양 블루경제 시험구 건설을 추진하고, 해만구 경제를 발전시키며, 산업구조를 최적화시킨다. 현대 어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해양생물제약, 생물제품 등 산업을 크게 육성한다. 해양관광, 문화혁신, 항만물류, 해운서비스 등의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4대 선박산업 클러스터 건설을 가속화시킨다.

과학기술을 통해 해양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 건설을 추진하고 일련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새로 설립할 것이다. 혁신협력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더 하고 해양혁신 전략연맹을 설립할 예정이다. 특색있는 수산품 자원에 대한 보호와 이용, 그리고 해양생물자원 개발에 필요한 중요 기술에 관해서 연구하고 현실에 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와 동시에 해협 '블루실리콜밸리(蓝色硅谷)'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역과 해저에 관한 측량과 제도(制图) 작업을 추진하며, 해양생물, 해저광산, 해양에너지와 석유가스 등 자원에 대한 조사, 탐사와 개발 활동을 전개한다.

해양종합관리체제 혁신에 있어 도서, 해안지대, 해양생태환경에 관한 보호·개발 종합 조정 메커니즘을 추진한다. 그리고 해역도서자원에 관한 유상사용 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근안 해역자원의 개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며, 방치되고 있는 해역에 대한 감독과 관리도 강화한다. 해역, 해안선 등 중요한 해양자원에 대한 투자기준을 설립하고 차별화된 해양이용 정책을 실행한다. 블루해만 정돈 행동계획을 실시하고 2020년까지 근안 해역의 1급과 2급 수질 비중이 72%로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자료 : 中国海洋报, 2016. 04. 05. >

3 충칭(重庆), 장강 상류 항운중심 건설 추진

최근 충칭(重庆)시는 장강상류 중심항만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충칭은 철수연운(铁水联运 : 철도와 수상 두가지 수단을 연계한 운송방식)、공수연운(公水联运 : 도로와 수상 두가지 수단을 연계한 운송방식)、강해연운(江海联运 : 강과 바다를 연결한 운송방식) 및 수수환적 등 여러 복합운송방식 추진을 통해 고객에게 운수 일체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지역 화물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칭시는 장강경제벨트 및 "일대일로" 등 국가 전략 배경 하에 충칭장강상류 항운중심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충칭시가 발표했던 「장강상류항운중심」 건설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충칭은 국내와 국제를 연결할 수 있는 국제 장강 상류 중심항구도시 발전을 통해 2020년까지 "서비스+ 파급"형 장강상류 항운중심을 형성할 것이다.

충칭은 "일대일로"와 장강경제벨트의 지점에 위치해 있고, 장강 3대 항운중심 중의 하나이다. 최근 5년 동안, 충칭 수운교통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100만 TEU를 돌파하고, 화물량과 화물 운송 회전량은 연평균 10%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 환적량도 43%까지 제고하였다.

현재 충칭은 장강、자링강(嘉陵江)、우강(乌江)을 위주로 하는 "1간류, 2지류(一干两支)"와 바다와 강을 통하는 항로 시스템이 형성되었으며, 항로 총 길이는 4,451 킬로미터이고, 그 중 4급 이상 항로는 1,400 킬로미터이다. 중국 내하지역 철·공·수를 연결 운송하는 충칭과원항(果园港), 동항(东港) 등 대형화 및 집약화 항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능력은 1억 8,000만 톤,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400만 TEU를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충칭은 선박 운송능력 660만 DWT, 선박 표준율 76.5%을 기록하였다. 충칭선박교역소는 연간 거래 금액이 70억 위안을 넘어, 누적 금액 200억 위안 이상을 통해 수운업의 영향력과 파급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Contents

통계로 보는 중국물류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2010-2015년)
▸ 이슈 포커스
: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과 시사점
▸ 동향 & 뉴스

향후 충칭 항운중심은 교통네크워크와 서비스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충칭은 13.5기간 고속 도로망, 철도망 및 항공허브 건설을 통해 장진로황(江津珞璜), 푸린용투(涪陵龙头), 만주신전(万州新田) 등 항구의 철도와 도로 집산통로 건설 추진을 통해 집산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또한, 철수연운、공수연운、해철연운 및 수수환적 등 여러 복합운송방식 발전을 통해 고객에게 일체화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장강 중하류지역 화물은 장강항로를 거쳐 "위신오우(渝新欧)" 국제철도를 이용해서 유럽까지 운송할 수 있다.

또한 충칭항운교역소는 싱가포르、유럽 등의 항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항운교역 플랫폼 및 과원(果园)항 물류허브를 기반으로 거래결제、금융리스、융자담보 등 금융서비스 기능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대형 항운、물류、무역 기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항운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장강상류항운중심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충칭은 매년 5억 위안의 수운 건설 전문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허브항、주요항만 및 항운서비스체계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철수연운을 이용한 컨테이너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항운중심 배후지를 확대 한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충칭은 현대항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수운 화물량 2억 톤 돌파, 환적 비중 50% 이상, 장강상류지역 화물 운송량 50%, 컨테이너 물동량 80%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 : 经济日报 2016. 04. 05 >

4 우한개발구, 항만물류 발전계획 수립, 2020년까지 천억 위안 경제체 형성 예상

최근 관련 소식에 따르면, 「우한(武汉)개발구 항만물류 "13.5"계획」은 이미 심사를 통과했다. 향후 5년 동안, 우한개발구의 항만물류산업은 천억 위안 급 신흥경제체로 거듭날 계획이다.

우한개발구는 해안선 총 길이 36km, 우한시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이미 5.26km가 이용되고 있고, 전용 부두 45개, 연간 화물 처리능력 2,602만 톤, 자동차 ro-ro 운송능력 34만 대를 기록하고 있다.

"13.5"기간 동안, 우한개발구는 14.12km²의 항만원구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등남(邓南)-통진(通津) 항만물류원구, 사모(纱帽) 항만물류원구와 쥔산(军山) 항만물류원구가 포함되어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수출입 전시무역、수출입 자동차거래、농산품 물류무역、전자전기거래 전시 및 해외 전자상거래 등을 중점으로 발전시킨다.

2020년까지 우한개발구 연간 물동량은 5,000만 톤,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100만 TEU, 자동차 ro-ro 운송능력 100만 대, 물류산업 종합수입액 2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2016년 우한개발구는 우한선박거래중심 구축을 시작하는 동시에 항운종합서비스중심, 화중(华中)자동차산업물류원구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개(经开)항-닝보항 컨테이너 항로도 개척할 것이다.

< 자료 : 长江网 2016. 04. 06. >

5 톈진항 신부두 건설

최근 소식에 따르면, 톈진시는 2016년 중점 건설사업의 하나로 톈진항 난장(南疆) 27호 일반부두 건설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완성 후 톈진항의 "북으로 확장, 남으로 이동(北扩南移)" 전략과 "동은 하이테크, 남은 특화, 북은 업그레이드(东

Contents

통계로 보는 중국물류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2010-2015년)
▸ 이슈 포커스
: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과 시사점
▸ 동향 & 뉴스

高端、南优质、北提升)"의 전체적인 포지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대외서비스 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톈진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총 투자액 14.1억 위안이 투입되어 연간 물동량 처리량 980만 톤의 20만 톤급 일반벌크선석 1개와 총 면적 약 25.15만 제곱미터의 부두 야적장을 건설한다.

계획에 따르면 톈진항 난장 27호 일반부두가 완공 후 운영에 투입된다면, 톈진항 26호 광석 하역 특화 선석과 상호보완하여 추후 배후지의 항만금속광석 물동량 처리 요구를 좀 더 만족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만이 지역경제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톈진항의 "일대일로" 전략의 적극 추진과 징진지 협동발전전략, 북방국제항운핵심지역 건설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외에도 톈진항은 항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하이지아(海嘉) 자동차의 roll on/off 부두, 린강(临港) 신흥건재 일반부두 등의 부두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초설비건설 방면으로 동장얼다오(东疆二岛) 건설 추진으로 산업군과 자원의 밀집 및 집약 이용을 실현하고자 한다.

< 자료 : 新华社 , 2016 .04. 06. >

6 항만건설 강화로 "일대일로"를 지지한다

"일대일로"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일대일로"를 둘러싼 사회 각계의 관심이 크다. 2015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 연합하여 발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공동 구축 추진의 전망과 행동> (이하 <전망과 행동>)에서는 상하이, 톈진, 닝보-저우산, 광저우, 선전, 짠지앙, 샨토우, 칭다오, 옌타이, 다롄, 푸저우, 샤먼, 췐저우, 하이코우, 싼야 등 연해 도시의 항만건설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다. <전망과 행동>에서 주요 항만의 하나로 언급한 닝보항 그룹 재무유한공사 대표 리링홍(李令红)은 올해 전국 양회에서 닝보-저우산항 자유무역항 설립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는 닝보-저우산항은 해상실크로드와 장강경제벨트의 교차점에 위치한 중요한 컨테이너 원양항로 항만으로, 철광석 환적기지와 원유 재선적 기지이며 액체화공품과 석탄, 곡물의 저장운반기지 주요 허브항만 중 하나이라고 밝혔다. 현재 닝보-저우산항은 자유무역항으로써의 조건을 구비하였고 기초설비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각 항만기업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선진 지역과 비교해보면, 현재 세계적인 컨테이너 환적항만인 싱가포르와 홍콩 등은 자유항 정책을 실시하여 대량의 컨테이너 환적 화물을 유치하고 세계 컨테이너 중심허브로써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컨테이너 수량뿐 아니라 세계 주요 정기선사 아시아 본부의 다수가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어 그 지역의 해운 관련 보험, 금융, 선박리스 등 분야도 같이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의미이다. 톈진의 발전 상황을 보면, 현재 톈진에 본사를 둔 각 금융리스사는 697개에 이르고 등기 자금은 2,683억 위안에 이른다. 차이나 코스코쉬핑 그룹 대표 쉬리롱(许立荣)은 최근 열린 "중국발전포럼 2016"에서 항만사업은 기초 인프라 건설에 속해 "일대일로"전략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미래 발전 전망이 매우 밝고 장기적으로도 낙관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항만물류발전 방면에 있어 리링홍은 항만건설비(港口建设费) 징수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항만건설비는 비록 국가재정예산 중 일부이지만 화주 기업으로써는 기타 항만 물류비용의 1/3을 차지한다. 장강삼각주를 예로 들면, 항만건설비가 항만 하역비 등 항만비용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30% 차지한다." 중톈강철그룹 대표 동차이핑(董才平)은 얼마전 전국 양회에서 항만건설비 감면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는 항만건설비 감면 대상 화물 종류를 확대하여 철광석, 석탄, 강재 등 벌크화물을 감면 대상 리스트에 포함시켜 더 많은 감면 정책을 펼친다면 공급책 개혁에도 도움이

Contents

통계로 보는 중국물류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2010-2015년)

▸ 이슈 포커스
: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과 시사점

▸ 동향 & 뉴스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SIPG 대표 천쉬위안(陈戎源) 역시 양회 발언시 항만건설비를 없애서 수출기업의 비용을 낮출 것을 건의했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 확립 후 항만건설비 징수 문제는 이미 행정관리부문의 정책변화에 반영되었다. 2015년 12월 중순, 재정부와 교통운수부는 연합으로 <항만건설비 징수 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해외수입화물, 국내수출화물이 다른 환적항만에서 다시 중복 징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국내수출화물 중 선적항이 난징 장강대교 이상 장강간선과 기타 내륙해안의 비대외 개방항만이면서 하역항 혹은 환적항이 연해와 난징 장강대교 이하 장강간선의 대외개방항만이면 하역항 혹은 환적항에서는 현행 징수 표준의 절반에 해당되는 항만건설비를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 자료 : 金融时报 , 2016 .03. 28. >

7 '13 · 5'계획 중 해양이슈

3월5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5'계획 요강(초안)>(이하 <요강(초안)>으로 약칭)을 발표하였으며, 이 가운데 해양 관련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강(초안)>에서 해양경제를 심화·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1) 해양산업구조를 최적화하여 원양어업을 발전시키고 해수담수화 규모화 운영을 추진하며 해양생물의약과 해양플랜트 제조 등 산업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 해양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심수, 녹색, 안전과 관련된 해양 첨단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려고 한다. 3) 스마트 해양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한다. 4) 시장 논리에 기반한 해역자원배치 모델을 세운다. 5)산동, 저장, 광동, 푸젠, 톈진 등 전국 해양경제발전 시험구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이난성이 남중국해 자원을 이용해서 지역특색을 지닌 해양경제를 발전시키는 사업도 지원할 것이다. 칭다오 블루벨리(Blue Valley)를 비롯한 해양경제발전 시범구를 구축할 것이다.

둘째, 해양자원환경 보호 강화하기 위해 해양생태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관리를 추진하고, 해양주체기능구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인근 해역 공간구조 배치를 최적화하고 개발을 과학적으로 통제한다. 간척지 매립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해안선 보호와 회복을 강화한다. 자연해안선 보유율은 최소한 35%에 달해야 한다. 어획에 대해도 엄격히 통제하고 어획금지시기 제도를 실시한다. 해양자원에 대한 탐사·개발을 강화하며 극지대양 과학고찰을 적극 추진한다. 육지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바다 유입량과 오염물 배출 총량에 대한 통제제도를 실시하며, 해양자원 환경적재능력에 대한 조기경보 메커니즘을 구축하려고 한다. 해양생태 레드라인 제도를 수립하여 '남홍북류(南红北柳 : 남방 홍수림, 북방 정류柽柳림)' 습지회복 및 '생태도서암초'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해양 희귀물 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해양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능력 및 해양재해에 대한 감시·검측, 리스크 평가와 재해 예방·감소 등 능력을 제고한다. 해상구조(救助) 인력을 미리 배치하고, 해상 돌발환경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해양감찰제도를 실시하여 해양에 대한 감독을 일상화해야 한다.

셋째, <강요(초안)>에서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상법집행기관의 능력을 제고하고 해양문제에 관한 역사와 법학 이론 연구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확장할 것이다. 해상 권리침해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중국 관할해역에서의 항행자유와 해양통로의 안전을 제대로 유지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지역의 해양질서 수립과 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Contents

통계로 보는 중국물류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2010-2015년)

▸ 이슈 포커스
: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과 시사점

▸ 동향 & 뉴스

참여하고 주변국가 간에 해양과 관련 대화·협력 기제를 구축함으로서 실무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해양사무에 관한 조정기제도 더욱 보완하여 해양 전략의 수립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강요(초안)>에 의하면, '13·5'시기에 중국은 100개의 중요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해양과 관련된 프로젝트 중에 심해공간기지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심해탐측, 대양 드릴링, 해저자원 개발이용, 해상작업 보장 등에 관한 장비를 제조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하이, 톈진, 다롄, 샤먼 등 국제해운센터의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항만의 스마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쟈오저우만(胶州湾), 랴오동만(辽东湾), 보하이만(渤海湾), 항저우만(杭州湾), 샤먼만(厦门湾), 베이부만(北部湾) 등 지역에서 수질오염 처리와 환경정돈 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북극에서 새로운 관측기지를 세우고 남극에서 새로운 과학탐사기지를 설립한다. 선진기술을 갖춘 새로운 쇄빙선을 건조하고 남극 지역 항공능력을 제고한다.

< 자료 : 中国海洋报 , 2016 .03 08. >

8 5가지 측면에서 중국 수산 식품 가공 개발

수산물 가공과 종합 이용은 어업 생산의 연장이다. 수산물 가공 및 종합 이용을 발전하는 것은 수산 양식 산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업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업 산업의 발전 잠재력도 확대시키며 어민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은 1억 톤을 넘었지만 그중 해마다 제품 변질 등 문제 때문에 버린 수산물이 12%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36%의 저가 수산물은 동물 사료로 쓰이고 사람 음식용 수산물은 총생산량의 50%정도만 있다. 이는 인류의 소비 수요를 채울 수 없다. 따라서 하이테크 기술을 통해 수산물을 심층 개발하고 새로운 수산물 즉석 식품, 인스턴트식품과 건강식품 등을 생산하는 것은 현재 국제 수산식품의 발전 추세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수산 식품 심층 가공은 시작했지만 발전이 느리다. 예를 들면, 수출 수산물의 주요 품목은 냉동 생선, 생선 통조림, 건조 제품 및 신선 수산물 등이다. 따라서 수출가치가 낮다.

현재 중국은 수백 가지 수산물 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어구이, 어육 제품과 전통적인 훈제품 등이다. FAO 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약 75%를 가공하고 판매하지만 중국의 가공 수산물은 총생산량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중 담수 수산물은 중국 수산물 총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공 제품의 비율이 5%밖에 안 된다. 신선 제품으로 판매하는 비율이 95%이다.

수산물을 가공한 후에 판매하면 수산물 가공 폐기재를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산물 식품의 편리성, 다양성과 특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수산물은 기능성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수산물은 2,000여 종 활성 물질이 있어서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 및 약품의 가공 원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가공을 통해 많은 수산물 원재료를 소모할 수 있어 수산물 양식과 수산물 생산량의 증가 공간이 커질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외 시장 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수산물 심층 가공은 아래 5가지 측면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 1) 저가 수산물, 작은 물고기의 종합 개발 가속화이다. 해외 경험을 보면 폐기되거나 동물 사료로 만든 저가 수산물, 작은 물고기들은 어묵, 소시지, 떡 등 식품으로 만든다. 인간 생활에 편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

Contents

통계로 보는 중국물류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2010-2015년)
▸ 이슈 포커스
: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계획(2016~2020)과 시사점
▸ 동향 & 뉴스

라 저가 수산물의 이용률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2) 인기 합성 수산물 개발이다. 어육, 해조 등 대종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고 조미료와 조합하여 생선과 비슷한 식품을 생산한다. 예를 들어, 고급 인조 상어 지느러미, 게육, 패육, 해파리, 새우 등이다. 3) 수산 건강식품 개발이다. 수산물 가공 폐기물이나 생선 내장을 가공하고 노인과 아동에게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만든다. 예를 들어, 어린(鱼鳞) 식품, 어안 식품, 오징어먹물 식품, 어유 식품 등이다. 4) 수산물 가공 제품 수준 제고이다. 예를 들면, 캐비아, 생선채 등 제품의 수준을 높인다. 5) 신형 수산물 음료수와 조미료 개발이다. 예컨대, 김, 미역 등으로 해열하는 음료수 등을 만들 수 있다. 또 미역을 농축액으로 만들어 빵, 비스킷 등에 넣어서 영양가를 높일 수 있다.

< 자료 : 中国渔业新闻网 , 2016 .03. 28. >